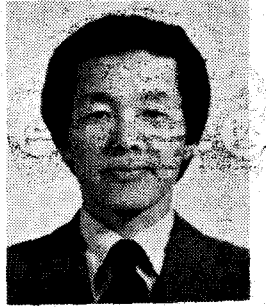


혈구세포감소로 빈혈, 감염, 출혈 유발



최 일 영
한양의대 교수

백혈병은 조혈기관에 생기는 악성종양이다. 정상인 사람은 정상조혈세포가 존재하여 자기 체중의 8% 정도의 피를 만들어 낸다. 그러나 백혈병에 걸리면 백혈병세포가 생겨 정상조혈 기능을 억제한다(백혈병세포에서 억제물질이 유리되는 것으로 생각함)고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의 3가지 중요한 혈구세포의 생산이 감소되므로 이에 따른 빈혈, 감염, 출혈의 증상을 유발하게 되며 또한 백혈병 세포가 신체의 타장기에 침윤하므로 증상을 나타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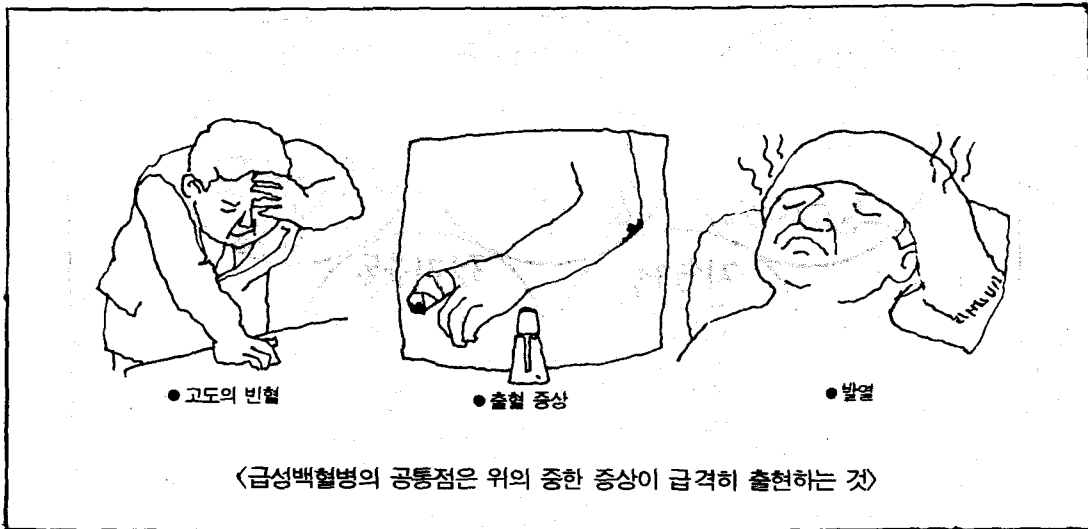
백혈병 환자의 임상증상도 상대적 이어서 예컨대 백혈병의 4가지 종류 즉 급성골수성, 급성림파성, 만성골수성, 만성림파성백혈병중 만성골수성에서도 일정시기까지 환자의 15%내지 20%는 아무증상을 나타내지 않기도 한다. 백혈병의 치료를 받아 호전된 완전관해 환자에서 보이는것 처럼 치료받기전 백혈병세포가 10¹¹내지 10¹²이었을 때 출혈, 감염등 전신 증상이 있었던 환자가 치료후 10⁸ 또는 10⁹으로 백혈병 세포가 감소되면 출혈등 모든 백혈병증상이 소실되어 정상인과 똑같은 상태를 수개월이상 유지하는 환자를 흔히볼 수 있다. 그러나 신체내에 백혈병세포가 완전히 소실되지 않고 10⁸내지 10⁹로 남아있기 때문에 재발하며 이 재발 때문에 백혈병이 난치병이라고 하는 이유가 되고있다.

백혈병 때는 진단시 70%환자에서 점상출혈, 자반증등이 관찰되며 망막, 점막, 피부등에 출혈이 뚜렷하다. 비출혈(코피), 잇몸출혈, 발치출혈, 월경양의 증가, 장출혈등이 생기지만 뇌출혈이 되면 뇌졸중(중풍)이 되는등 치명적일수 있다. 이러한 출혈의 원인은 주로 혈소판생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생기며 혈관의 투여과성 증가로 인한 혈관장애 또는 백혈병 세포의 전응고능 예컨대 급성골수성백혈병의 M₃형태는 골수아세포 내에있는 비정상과립에 포함된 물질때문에 심한 출혈 소견을 보이기도 한다.

백혈병시 빈혈은 대부분 환자에서 나타나는데 이는 조혈기능 감소로 적혈구생성이 잘 안되는 때문과 혈소판감소로 출혈이 이미 생겨 혈액손실이 오기때문이다.



백혈병 때는 진단시 70%환자에서 점상출혈 자반증등이 관찰되며 망막, 점막, 피부등에 출혈이 뚜렷하다. 비출혈(코피), 잇몸출혈, 월경양의 증가, 장출혈등이 생기지만 뇌출혈이 되면 뇌졸중(중풍)이 되는등 치명적일 수 있다. 또 빈혈 현상이 수반되는데 이는 조혈기능 감소로 적혈구 생성이 잘 안되는 때문에 혈소판 감소로 출혈이 이미 생겨 혈액손실이 오기 때문이다.



<급성백혈병의 공통점은 위의 중한 증상이 급격히 출현하는 것>

인체에 필수적인 적혈구, 백혈구 및 혈소판등 혈구를 생성, 성숙시키는 중요한 기관이다. 따라서 백혈병세포에 의해 말수능력이 저하될때에는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 적혈구는 헤모글로빈을 포함하고 있어 폐에서의 산소교환 및 말초장기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여 우리몸의 각종 대사가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한다.

급성백혈병때 침윤되는 신체기관 으로는 임파절, 비장, 간, 폐, 폐, 심장, 신장, 위장, 중추신경계, 피부등이며 급성림파성 백혈병 때는 비장, 간, 임파절종대가 흔히 동반된다. 특히 만성골수성백혈병 때는 비장종대가 환자의 90%에서 관찰되며 이때문에 복부팽만감을 주증상으로 호소하게 된다. 비장은 정상성인에서 150그램 정도의 무게를 갖고 왼쪽상복부의 늑갈하연에서 촉지되지 않는것이 원칙이나 만성골수성백혈병 때는 보통 400내지 600gm으로 커지면서 성인 주먹크기 이상으로 커진것을 만질수 있으며 때로는 늑골로 부터 10cm 이상 커지면서 배꼽주위에 다다른 경우도 있다. 심한 경우는 전복부의 50% 또는 80%에 이르기도 한다. 병경과에 따라 비장은 줄어들게 된다. 만성골수성 백혈병환자는 평균 3년정도 만성기를 유지하면서 임상증상을 보이나, 소위 급성전환을 일으킨 때에는 급성백혈병의 증상을 발현하게 된다.

백혈병의 증상은 전술한 바와같이 크게 두가지로 대별한다. 첫째는 백혈병세포 때문에 정상조혈세포의 각각의 장애에 따른 증상들을 나타내며 두번째는 백혈병세포가 신체내의 여러장기를 침윤하므로 침윤된 장기의 증상을 나타내는 것이 다.



환자70%가 點狀출혈, 자반증보여

빈혈이란 환자의 적혈구안에 포함된 철색소양이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이에 따른 증상으로 얼굴이 창백해지고, 심계항진, 두통, 이명, 현기증, 체중감소, 흉통을 호소하며 근육에 힘이없고 쉽게피로하며 집중력이 소실되며 층층대를 오를때, 팔리 걸을때 숨이 가쁘며 여성에서는 월경양이 많아지거나 무월경이 되며 남성에서는 성욕이 감퇴하거나 소실되며, 위장증상으로는 소화장애, 구역질, 식욕감퇴, 변비 증상이 오며 미열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증상들은 백혈병 환자에서 빈혈이 있을때 볼 수 있는 것들이다. 백혈병 때문에 백혈구생성이

잘 안될때도 감염이 자주 생기는데 이때는 고열이 오래 계속되는 경우가 많다. 적절한 항생제로 조절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때도 열때문에 고열받게 된다. 감기처럼 열이나는 환자가 내원하여 백혈병의 진단을 받게되기도 한다. 백혈병자체에 의한 열은 드문편이며 백혈병때문에 백혈구감소가 초래되어 이차적으로 균감염을 유발하여 열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백혈병은 골수와 말초혈액의 질환이지만 간, 비장, 임파절등 조직에도 침범한다. 급성백혈병 환자의 25%는 초기증상으로 뼈에 통증을 호소한다. 골수성백혈병 환자의

대부분은 흉골하부에 압통을 호소한다. 중추신경계에 백혈병세포가 가면 두통, 구토등을 호소한다. 급성골수성 백혈병때 잇몸이 스펀지처럼 부어오르는 경우도 있다. 백혈병세포가 안구주위에 모여서 녹색의 멍어리를 형성하기도 하는데 이를 크로로마 라고 한다. 순환혈액내에 백혈병세포가 많이모여 다닐때는 소혈관 특히 뇌의 혈관주위에 모여서 멍어리를 형성하며 혈관벽을 손상하게 되어 혈액순환장애및 혈관 출혈을 일으켜 뇌졸중환자로 변하면서 위독한 상태에 이르기도 한다. 정상적으로 골수는 흉골, 늑골, 장골등 뼈 속에 존재하여

국민건강생활지침

1. 식사전에는 손을 씻고 식사후에는 이를 닦읍시다.
2. 음식은 제 때에 싱겁게 골고루 먹읍시다.
3. 행주와 도마는 삶거나 햇볕에 말려서 씹시다.
4. 쓰레기통은 뚜껑을 덮고 주위를 깨끗이 합시다.
5. 예방접종과 건강진단은 때 맞추어 받읍시다.
6. 지나친 담배와 술을 삼갑시다.
7. 알맞게 운동하고 즐겁게 생활합시다.